

PEOPLE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정효균 FIXON·㈜추억여행 대표 함평 인재양성기금 300만원 기탁

함평군은 최근 정효균 FIXON·㈜추억여행 대표가 인재양성기금에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효균 대표이사는 함평을 수호리 출신으로 평소 지역 후배를 향해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고향 사랑 실천을 위해 인재 양성 기금에 흔쾌히 장학금을 기탁했다.

정효균 대표이사는 “고향의 후배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을 했다”며 “앞으로도 함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기금은 “지역 학생에게 관심과 더불어 기부금 기탁까지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함평군 출신 학생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건보공단 지역본부 건강백세운동교실 강사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최근 남부대학교에서 올해 건강백세운동교실 운동강사 191명을 대상으로 운동강습 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생활실천 및 표준화된 강습운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백세운동교실 운동강사들은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500여개의 경로당과 청장년층을 위한 기시설 등에서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지도를 통해 참여자 건강행태 개선과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주도하게 된다.

본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 CPR(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생활습관 개선 등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또 윤리경영을 통한 부패 방지와 투명한 강습환경 조성을 위해 강사가 지켜야 할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와 건강생활실천 매너지 발대식을 가졌다. 이산화 기자 gback@gwangnam.co.kr



서부경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광주 서부경찰이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나선다.

서부경찰은 17일 서구청과 합동해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등 범위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종합대책의 하나로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와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교통사고 유발 요소를 사전에 제거, 사고를 예방했다.

김주현 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광산구-LH, 수완·선운지구 주차난 해소 ‘힘 모은다’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 업무협약 호수공원 인근 토지 2년 무상임대

광주 광산구 수완·선운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힘을 모은다.

17일 광산구와 LH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수완지구 공공부지 임시공영주차장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는 LH로부터 수완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1045.9㎡ 면적의 토지를 2년간 무상 임대 받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수완지구는 도심 개발,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주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주차난이 심각해 주민의 주차시설 확보 요구가 잇따랐다.

광산구는 주민 요구에 따라 수완지구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H와 공공부지 활용을 협의해 왔으며 무상 임대한 토지에 총 40면 규모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 오는 7월 개방할 예정이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수완호수공원과 인접해 있어 주차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사진 왼쪽)는 17일 수완·선운지구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태성)와 ‘수완지구 공공부지 임시공영주차장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 오는 7월 개방할 예정이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수완호수공원과 인접해 있어 주차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는 시민 이용 현황,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인 주차장 운영 방안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이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13일 LH와 선운2지구 주차장 및 주차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주차복합청사 건립은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요구, 향후 선운2지구 주차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복합청사는 지상 5층 규모로, 새로운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사무 공간과 약 110면의 주차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다.

LH와의 매매계약으로 소총동 일대 1626.7㎡ 면적의 부지를 확보한 광산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LH와의 협력으로 수완지구, 선운지구의 공공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심 팽창으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7일 오전 구청 나눔홀에서 열린 자기계발 동호회 ‘나를 만드는 100일의 기적’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앞장’

‘나를 만드는 100일의 기적’ 첫 발

광주 서구가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자기계발 동호회 ‘나를 만드는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자기계발 동호회는 바다 웰빙지와 마인드 웰빙지로 운영되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100일 동안 실천 과정을 인증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도전 의식을 높이고 조직적으로는 구성원 간 소통·협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주간 목표를 달성한 회원에게 매주 5000 포인트를 적립하고 100일 후 최종 목표를 달성한 회원 또는 14주 연속 주간 목표를 달성한 회원에게는 성공 포인트 3만원을 적립해 최대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서구가 운영한 조직문화 개선 모임인 ‘핀온워크(Fun-On-Work)’에서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회원 20여명은 자기소개와 동호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운동·식단, 공부·독서 등 해당 분야에서 설정한 목표를 100일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회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 간 정보 공유와 상호 격려를 아끼지 않고 ‘타임스탬프’ 앱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인증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100일 동안 꾸준한 실천을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이러한 변화가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구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백설기데이’를 맞아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사랑을 건네는 백점만점 백설기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농협 전남본부 “사랑 건네는 백점만점 백설기데이”

목포대서 백설기떡·즉석밥 나눔행사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백설기데이’를 맞아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사랑을 건네는 백점만점 백설기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 류종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대학교 재학생 및 임직원에게 백설기 떡, 즉석밥·우유를 나눠주고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를 실시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쌀에 대한 청소년층의 긍정적 인식이 낮은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백설기데이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사탕대신 백설기로 전하는 신문화로 자리 잡아 국민 쌀 소비촉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시행된 백설기데이(3월 14일)는 화이트데이의 사랑 대신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나눔으로써 쌀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제정했다.



고흥군과 ‘(사)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은 최근 고흥 금산면사무소에서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출향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금도 근현대 기록유산 사진집인 ‘옛 거금도를 추억하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고흥군, 거금도 근현대 기록유산 사진집 발간

‘옛 거금도를 추억하다’ 출판기념회

고흥군과 ‘(사)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은 거금도 근현대 기록유산 사진집인 ‘옛 거금도를 추억하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3일 고흥 금산면사무소에서는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출향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 책은 총 390쪽 분량으로 고흥군 금산면의 지난 100여년의 근현대 시기 거금도 섬마을의 풍경과 섬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록사진집이다. 또한 고지도와 옛 사료 등 희귀한 기록물도 발굴돼 함께 실여져 있는 한편의 역사서로, 전국 단위에서도 유례가 찾기 힘든 지역사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된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고지도를 통해 본 거금도의 역사와 문화, 금산면 7개 법정리(대흥, 어전, 신전, 신촌, 석정, 신명, 오전)의 옛 모습 소개 △대흥리 선사시대 고인돌, 절이도 목장성, 적대봉 사화랑 봉수, 송광암, 금석문 등 유형 문화유산과 거금도 소리, 농악, 당제 등 무형 문화유산 조망 △근현대 섬사람들의 생업과 생활상 조망, 김 양식업의 변신기, 옛 철선,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 시대상 기록 △거금도 주민들의 가족, 이웃, 종교, 사상 등 섬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 △초·중·고등학교의 옛 교정과 학생들의 배움터 기록 등이다.

김하생 (사)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 소장은 “이 책을 통해 거금도 주민들의 다양한 삶과 여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밝은안과21병원 ‘2025년형 스마일프로’ 시술 시행

밝은안과21병원(대표원장 김주엽·사진)은 최근 독일의 광학 기업인 자이스(ZEISS)사의 ‘비주맥스800(VISUMAX 800)’ 장비를 도입해 ‘2025년형 스마일프로’ 시술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일프로는 새로운 레이저 시력교정 장비인 비주맥스800을 이용한 최신 시력교정술이다. 비주맥스800은 스마일라시 장비인 비주맥스500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최첨단 기술력이 용돼 성능과 기능이 대폭 향상됐다. 미국 FDA와 한국 KFDA의 검증을 모두 승인받으며, 안정성과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시력교정술인 스마일프로는 초정밀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레이저 조사가 가능하다. 스마일라시의 레이저 조사 시간이 약 25초인 반면, 스마일프로는 10초 내외로 수술 시간을 2배 이상 단축했다. 수술 시간이 짧아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

김주엽 대표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back@gwangnam.co.kr



임택 동구청장, 남광주시장 새벽시장 민생 현장방문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최근 남광주시장 새벽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